민선 8기 문화콘텐츠 주력산업 육성

전남도 '비전 기획단' 운영
조직문화 기동형·미래형 개선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 온힘

전남도가 다가오는 민선 8기 실질적 도민 소득 향상을 위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국비 예산 사상 첫 9조 원 시대를 연 것을 비롯한 민선 7기 4년의 성과를 이어받아 전남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1일 오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민선7기 마지막 정례조회를 열어 성과와 반성을 통해 조직문화를 기동형·미래형으로 개선, 작은 사업이라도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추진에 온힘을 쏟기로 다짐했다.

정례조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각 실국별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일일이 열거한 후 '민선8기 비전 기획단'을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선7기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매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조직을 기동성이 있는 미래형·전략형으로 개선해 민선8기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특히 "민선8기 비전 기획단 운영을 통해 전략별 프로젝트를 다듬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할 시기"라며 "그동안 SOC에 치중해 어느정도 기반을 갖춰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농수축산,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전남의 새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자"고 덧붙였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환태평양시대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 전남' 비전 실현도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전남은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이유로 광주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향하고자 하는 의식이 팽배해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며 "전남의 무한한 잠재력을 살린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 전남'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인 정책을 구체화해 균형발전을 선도하자"고 독려했다.

이어 "최근 오미크론 확진이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어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코로나 장기화로 힘들고 지쳤던 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러-우크라 사태로 어려운 기업과 농어업인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는 지난 1일 오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공감과 소통을 위한 4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농업인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 장면.

신안군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영예

친환경농업인 9명 시상도

전남도가 지난 1일 김대중강당에서 친환경농업 확대와 발전에 기여한 4개 시·군, 친환경 농업인 9명에게 '2021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을 시상했다.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은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품목 다양화, 시책 활성화 등 성과를 낸 시·군과 친환경농업 육성·발전에 공헌한 농업인, 법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해 12월 시·군에서 신청받아 서류심사, 현지 확인,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전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기초자치단체 분야에선 신안군이 대상 영예를 안았으며, 영암군이 최우수상, 광양시·여수시가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다.

친환경농업인 분야 중 재배·생산부문에선 고흥 송승호씨가 최우수상, 해남 학의영농조합법인과 영암 황성주씨가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가공·유통부문에선 함평 이선숙씨가 최우수상, 해남 장순이씨와 장성 황경시씨가 각각 우수상을 획득했다.

축산부문에선 해남 민세영씨가 최우수상, 광양 권영근씨와 나주 나상훈씨가 각각 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 4개 시·군은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인증품목 다양화, 친환경농업 여건 조성 및 기반 확충,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성과 등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친환경농업인 분야 재배·생산 부문 수상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전남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가공·유통 부문 수상자는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이용·가공해 지역 상품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축산부문 수상자는 깨끗한 축산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지정 등 친환경 축산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광주시, 비대면 시대 200여 무료 강좌 운영

4대 추진전략 시행계획 마련
88억 투입 147개 사업 추진

광주시가 비대면 시대에 맞춰 외국어 등 200여 개의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를 마련하고 무료로 제공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88억원을 투입해 147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453개 온라인 강좌, 365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17만 9491명이 참여했다.

시는 이런 수요를 고려해 4대 추진 전략을 담아 올해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소통·협력 기반의 지역통합 플랫폼 구축, 수월하고 평등한 학습생태계 조성, 광주다운 평생학습 실천, 시민 맞춤형 생애설계 지원이 핵심이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 광주 시민 사이버 학습센터를 개편하고 자격증, 외국어, 정보화, 취업, 교양 등 200여 개 강좌를 무료 제공한다. 평생학습관, 마을 행복 학습센터와 함께 주민 주도로 수요를 파악해 프로그램을 짜는 평생 학습 마을도 운영한다.

시민 대학은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평생 학습의 장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린 뉴딜 등 콘텐츠를 반영한다. 중장년, 중도 탈락 청소년, 장애인 등 직업 교육과 일자리 지원 사업도 벌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녹색에너지연구원,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 TF 발족

신안군·한전 등 관계자 20명 구성

녹색에너지연구원이 공공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전력 계통을 확보하는 등 각종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T/F)을 발족했다. 전담팀은 신안군, 녹색에너지연구원, 한전, 한화건설, SK E&S 등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발전사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전력 계통 확보, 각종 현안에 지자체와 연구기관 및 민간발전사 공동 대응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신안군과 공동으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을 유치했다. 총사업비는 약 160억원으로 2023년 말까지 추진한다. 앞으로 사전 인허가 조사, 지역 커뮤니티 수용성 조사, 풍황자원 조사, 단지 설계 등 단지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등이 참여한 실무급 T/F팀을 구성했다"며 "앞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신안에 조성될 8.2GW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송전선로 구축 및 각종 현안 해결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에서 출연한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으로, 해상풍력,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핵심산업 기업 투자유치 나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
정보 공유·기술 정책 자문 협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핵심산업 중견기업 투자유치에 나선다.

3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김진철 광주경자청장과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만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중견기업의 발전과 광주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경자청은 중견련 특별회원 자격으로 기업친화적 투자환경 조성과 지역투자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중견련은 투자의향 기업의 발굴과 유망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하게 된다.

양 기관은 또 핵심산업 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기술·정책에 대한 자문 및 협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광주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경자청은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과 친환경·미래차 부품, 스마트에너지 등 핵심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수도권 및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견련은 2014년 제정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로, 국내 727개 주요 중견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광주경자청은 2021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46개 기업과 3000여 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많은 중견기업들이 차별화된 투자환경과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광주경제자유구역과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견련과 적극 협력해 수도권과 핵심기술 기업 등 우수한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